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 작지만 강한 금강대가 뜨는 이유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전국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는 졸업·입학식 인파로 넘쳐났다. 졸업생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험난한 사회속에서, 신입생은 자유와 낭만이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꿈을 펼칠 각오다.

IMF환난 이후 또다시 맞이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조계종립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 등 정규 4년제 종합대학들도 사회 초년생과 대학 입학생을 보내고 또 맞으며 인재발사를 통한 불교종흥을 발원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원대학인 태고종 동명대학원 대학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개교후 처음으로 박사5명과 1명을 각각 배출해 어느 해 보다 뜻 깊은 졸업식을 맞았다.

그러나 몇몇 대학 구성원들은 축하해야 할 졸업·입학식을 맞으면서 한편으론, 씁스레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이사회와 교직원 및 학생의 분열로 가슴 아픈 학위수여식을 중앙승가대는 장기간의 총장 공석상태에서 졸업식을 거행했다. 동국대 역시, 사리에 어긋난 동국역경원장 해임 여파와 대학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신바람이 난 곳도 있다. 바로 충남 논산에 소재한 금강대다. 졸업

생들의 세계 명문대 진학과 행정고시 합격 등 경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회 졸업생 30%가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했으며, 국내외 각종 대회 및 공모전에서 우수한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HK) 지원대학으로 선정돼 전세계 불교학 연구 센터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2002년 11월,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2등급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소수정예' 대학이다. 신입생 전원(올해 106명)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일정 성적 이상을 유지할 경우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며(97% 해당), 전교생에게 2인 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학이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변화해야 하는 전환기에 금강대는 천태종단과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작지만 강한' 신명문대학으로서 교육의 국제화와 특성화(불교학, 통상전공 등) 중심 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60년대 최고의 사립명문대에 서 나날이 교세가 약해지고 있는 동국대를 비롯한 종합대학들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금강대의 돌풍 비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조계종 사회부, 외국인 스님들 마곡사에서 연수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미얀마, 라오스, 폴란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찾아 온 16여 명의 외국인 스님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부는 종단 초청 외 조계종 사찰 체류 외국인 스님 1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7~9일 경주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외국인 스님 초청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불교 교육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교육, 외

국인 노동자 문제와 연계한 강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외국인 스님들의 애로점을 듣고,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와 귀종을 희망하는 스님에 대한 일정도 마련된다.

사회부는 연수 전 외국인 스님이 주로 체류하는 무상사 등 전국 100여 개 사찰에 연수 공문을 배포하고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02)2011-1830 노덕현 기자

## 공황에 빠진 불교상담개발원 어디로?

### 실무자 2인 외 실질적 업무수행 인력 無

불교상담대학 및 대학원 개강을 앞둔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탁)이 조직 내 성희롱 파문사건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상담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에 출근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두 명뿐. 정탁 스님을 포함해 5인이 근무하던 환경과 비교했을 때 상담개발원의 가동률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정탁 스님과 성희롱 관련 직원 2인은 사표를 제출했고,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기 때문. 사무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해도 징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3월 9일과 11일 산하 불교상담대학과 불교상담대학원 개강을 앞두고 있다.

성희롱 파문으로 인력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홍보는 물론 업무추진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포교원측이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를 미룸으로써 현재의 인력공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전 관계자는 "자비(전화를) 시작으로 정탁 스님을 비롯한 많은 상담원들이 이 워낙 공백이 사라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동안 자비(전화를)에 의존했던 상담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17년간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상담을 해왔다는 다른 관계자도 "포교원이 수수방관하면서 수습할 시간을 놓쳤다. 종단과 상담개발원, 개인간 문제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안타

까워했다.

한편 포교원은 2월 23일과 26일 제2차와 3차 불교상담개발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포교원 인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성희롱에 관련된 B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징치 1개월의 조치를 내렸으나 노동청에 징계결과 통보를 연기했다. 제3차 회의는 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선 제1차 인사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원장 정탁 스님의 사표 수리 여부도 공식확인 되지 않고 있다.

원력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을 이끈 정탁 스님과 실무 직원 2인이 사표를 제출하고, 조사 대상자인 사무총장이 남은 불교상담개발원이 설립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목된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호진 스님 잠적...표류하는 중앙승가대

#### 총추위·교수회 등 갈등, 일파만파

호진 스님이 끝내 중앙승가대 총장직을 고사했다.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중앙승가대를 두고 총장추천위원회와 교수협의회 등이 보이는 행보는 스님의 의도와는 달리 총장직을 둘러싼 내분으로 번질때가는 형국이다.

2월 18일 승가학원이사회의 호진 스님 추대 결의 후 월우 스님(총무처장) 등은 호진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동문들을 만난 자리에서 호진 스님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해, 총장직 수락에 긍정적인 듯 했지만 결국 스님은 잠적했다.

호진 스님의 총장 영입이 무산되자 당장 중앙승가대가 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을 총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비롯해, 중

앙승가대 교수협의회는 태원 스님(중앙승가대)을 단독 후보로 추대했다. 27일 현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중앙승가대 총장이 선출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워진 것은 스님의 총장 추대에 앞장섰던 정념 스님(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월정사주지)이다.

호진 스님의 총장직 고사가 정념 스님 책임론으로 번질지는 것에 대해 한 스님은 "절차상 무리가 있었지만 결과만으로 정념 스님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순순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호진 스님의 선량한 고사가 중앙승가대 내홍이라는 악과(惡果)가 되고 안되고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 외 승가학원 이사스님들의 지혜에 달렸다.

조동섭 기자

### 포교원, 종단신도 위한 東大의료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2월 26일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체결로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하고 교무금을 납부하는 신도는 일상 등대

병원, 분당 한방병원, 경주 동대병원 진료비의 10%,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됐다.

혜종 스님은 "4월 새 신도증 발급과 함께 신도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줌으로써 종단 신도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며 "동국대학교 의료원에서 협약에 흔쾌히 응해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 조계종, 국립공원 정책 본격 참여

#### 국립공원제도개선위 위원 위촉, 세미나 개최 잇따라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불교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총무원장 지원)은 2월 26일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와 워크숍을 잇따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노현 스님(범주사) 총삼 스님(화암사) 해오 스님(개암사) 계호 스님(진관사) 대한 스님(내장사) 등 국립공원 내 사찰 주지와 현응 스님(중앙총회 의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장적 스님(기회실장)을 위촉했다. 정념 스님(재무부장)과 세영 스님(사회부장), 수경 스님(문화부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위촉식 후 위원들은 제2차 회의를 갖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 및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어 개최된 워크숍에는 이병인 교수(부산대), 이분희 행정관(조계종 문화부) 등이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임시 중앙총회 3월16일 개최

조계종 제180회 임시중앙총회가 3월 16일 개최한다.

16~2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총회에서는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총무원장 선거법, 승려노후복지법 등 총회·총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3월말로 인기가 끝나는 교육원장 청화 스님 후임 원장 선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상공고는 시간과 장소를 동시에 지극히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시열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 제 19회 불교종합 복지관 완공기념 및 경제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경·울·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법회 (100일 법문)

▶ 일시: 2009년 3월 4일(수) ▶ 6월 11일(목) 100일간 오전 11시(법문) ▶ 장소: 법왕사 큰법당 ▶ 증명: 조계종 대종사 원공 정무스님

백고좌 대법회란 불상과 보살상과 나한상을 각각 백 분씩 모시는 한편, 백 명의 법사를 청하여 사자좌(獅子座)에 모시고 100일간 법문을 청하는 의식입니다. 특히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간 100인의 큰스님을 초청해 설법하는 전통 불교 법회로 증·유·열·불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래 맥이 끊어졌던 것을 저희 법왕사에서 매년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해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아니 IMF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정도의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왕사에서는 현재 국가가 처한 경제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시름에 깊은 서민들의 기정에 평안을 기원하는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천명의 대지위에 인경 3천명의 불교 중흥복지관을 완공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시시설, 문화공간 등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원하는 행사도 같이 봉행하게 됩니다. 조계종 대종사 정무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해인사 울주 종진스님을 모셨고 보살계 불명수지 법회로 회향하는 100일 동안의 이번 백고좌 대법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일차 3월4일**  
정무스님  
조계종 대종사



**100일차 6월11일**  
종진스님  
해인사 울주  
(보살계 불명수지법회)

1일차	3월 4일	정무스님 (대종사)	19일차	3월 22일	각성스님 (부산/화엄사주지)	37일차	4월 9일	성열스님 (강남포교원장)
2일차	3월 5일	도문스님 (죽림정사주지)	20일차	3월 23일	화정스님 (평택/명법사주지)	38일차	4월 10일	명정스님 (통도사/극락선원장)
3일차	3월 6일	일연스님 (완주/안심사주지)	21일차	3월 24일	인환스님 (서울/경국사회주)	39일차	4월 11일	마가스님 (천안/만일사주지)
4일차	3월 7일	수경스님 (총무원문화부장)	22일차	3월 25일	정어스님 (범어사주지)	40일차	4월 12일	정성스님 (해인사회랑대)
5일차	3월 8일	일진스님 (운문사학감)	23일차	3월 26일	원준스님 (김포/용화사주지)	41일차	4월 13일	지현스님 (송광사유원장)
6일차	3월 9일	지오스님 (전법어사승가대학장주)	24일차	3월 27일	현장스님 (대원사수련원장)	42일차	4월 14일	주경스님 (강릉/정원사주지)
7일차	3월 10일	원산스님 (통도사백련암)	25일차	3월 28일	종연스님 (인천/수미정사주지)	43일차	4월 15일	해원스님 (동화사수련원장)
8일차	3월 11일	종석스님 (운양/불국사주지)	26일차	3월 29일	시몽스님 (백양사주지)	44일차	4월 16일	혜해스님 (은혜사연수원장)
9일차	3월 12일	지안스님 (은혜사승가대학장)	27일차	3월 30일	현진스님 (여의도포교원장)	45일차	4월 17일	도오스님 (환성사주지)
10일차	3월 13일	암도스님 (백양사청량암)	28일차	3월 31일	지장스님 (광주/중심사주지)	46일차	4월 18일	정음스님 (정음사원)
11일차	3월 14일	해거스님 (금강선원장)	29일차	4월 1일	무주스님 (서울/수효사주지)	47일차	4월 19일	장산스님 (서울/대각사주지)
12일차	3월 15일	원순스님 (송광사인월암)	30일차	4월 2일	수안스님 (통도사축서암)	48일차	4월 20일	세운스님 (동국대장사)
13일차	3월 16일	선홍스님 (거창/아람사주지)	31일차	4월 3일	동봉스님 (우리결주지)	49일차	4월 21일	정락스님 (만의사유주)
14일차	3월 17일	자광스님 (관오사불교종합복지회주)	32일차	4월 4일	대주스님 (경도사주지)	50일차	4월 22일	지묵스님 (장흥/보림사주지)
15일차	3월 18일	현홍스님 (육조사선원장)	33일차	4월 5일	용산스님 (수덕사주지)			
16일차	3월 19일	환안스님 (사) 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34일차	4월 6일	혜남스님 (통도사전계사)			
17일차	3월 20일	지운스님 (성주/자비전사)	35일차	4월 7일	보각스님 (중앙승가대교수)			
18일차	3월 21일	혜경스님 (양주/화담정사주지)	36일차	4월 8일	정영스님 (군포/경각사주지)			

◎ 문의: 법왕사 종무소 053) 766-3747 ※ 동참신행단체는 미리 연락바랍니다. www.bubwangsa.or.kr  
▶ 50일차, 회향시 2번에 걸쳐 음악회 찬조출연 기다립니다. ◀